

공공미술2.0 사업 심의평

공공미술2.0사업에는 14건이 응모하여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2차 기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 심의에 5건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현재 공공미술의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인터뷰를 해 보니 문제점들이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 보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자성해야 할 지점들이 아프게 다가 왔다.

각 사업의 기획안에서 '성찰과 자기쇄신'이라는 예술의 고민이 빠져 있다 보니 현재 우리 현실의 고질적 문제인 '표면'과 '과시'와 '성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상의 문제들, 사업과 주민 주체들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해 가거나 표면적으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예술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출된 기획안에서 장소나 공간에 대한 집요한, 혹은 예리한 통찰이 부족하고 발랄한 패러독스, 일하는 과정과 태도의 전문성도 잘 보이지 않았다. 교과서적으로 옳은 것들, 참신한 아이디어, 세계를 사유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아이템'들이 공공미술로서 '열거'되거나 '적용'된 느낌이지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화'만 있다.

공공미술 2.0 사업은 기존 공공미술의 결과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는 지점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안된 안은 대부분 그 이상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들의 연속선에 점착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1차 서류 심사 이후, 2차 기획안 발표 심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요청하여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지 못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 전체는 선정작 없음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의 공공미술에 대한 혹독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시급하며 의미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2차 심의 대상에 대한 개별 평가

울산 동구는 대상지의 설정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가치부여 차원에서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조각공원 형식의 기존 공공미술사업의 답습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금 더 지역과 주민이라는 대

상에 집중한 제안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배후 마을이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획서에는 실체가 없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의지 외에 지역 마을·커뮤니티가 가지는 지역성과 콘텐츠에 대한 것이나 구체적 내용 및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기획안에서 대상지를 관광지이자 예술사이트로 보는 중첩된 시선은 작품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진입로 상징조형물과 공공미술작품, 그리고 체험형 폴리 등의 내용은 본 사업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진행될 경우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나 2차 심의에서도 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충남 홍성군은 현실성 있는 제안이 포함되었다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 장소에 공공미술이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기획안에서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오마쥬 작업이 공공미술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에서 주민들의 참여만이 공공성을 담보할 뿐 기획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 작품성과 시의성, 구체적 커뮤니티와의 작업방법 등을 읽을 수 없었다. 또한 생활재박물관과 오마쥬와의 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공공미술2.0 시범사업의 취지와 연관성도 약하다.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안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물리적 수치만 늘리는 결과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열악한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이라는 취지는 부각되나 수진1동 전체 약 8,000가구 중에 왜 대상지가 그곳인지, 지역의 특성과 본 기획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점도 보이지 않는다. 공공미술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지향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사업의 결과가 매우 의미 있었다. 이번 기획안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와 관련된 대상지의 일시적 프로그램으로서 장소성 또는 역사성과의 관계를 중시한 프로그램 기획이 제시되었어야 시의적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기획내용은 기존의 성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공미술2.0 사업의 취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생태”, “에코” 등 큰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서 구체적 장소 및 사람과의 성찰적 연계가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치의 부재가 아쉽다.

경기도 부천시 참여 관계자의 협력적 태도가 가장 돋보이는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왜 부천이며, 왜 소사동이어야 하는가의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미약했다. 다수를 대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공공미술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더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뼘공원의 개념적 가치 외에 지역성과의 연계가 없을 때 생기는 오류의 반복이 예상되며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의 무장소성과 예술의 수단화가 우려된다. 큰 개념의 참됨과 태도의 참됨, 예술의 수단화와 목적이 되는 예술과의 관계 등 쉽게 답하기 어려운 큰 고민을 하게 한다.